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 인천의꿈* 대한민국의미래	
		배포일자	2022년 12월 5일(월) 총 3매		
담당 부서	대기보전과	담당자	• 대기개선팀장 이정은 ☎440-3521 • 담당자 고은영 ☎440-3523	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위해 집중관리구역 5개소로 확대

- 남동구 논현2동·논현고잔동, 부평구 갈산1·2동 일원 추가 지정 -
- 도로먼지 제거청소 강화, 미세먼지 회피저감시설 설치 등 맞춤형 지원 이뤄져 -

인천시가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확대한다.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남동구 논현2동·논현고잔동, 부평구 갈산1·2동 일원을 ‘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’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.

이로써 인천지역 ‘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’은 중구 연안·신흥동3가(0.98㎢), 동구 화수·화평동(0.38㎢), 계양구 효성동(0.54㎢) 일원에 이어 5곳으로 늘어났다.

‘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’은 ‘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·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’으로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우선 추진된다.

논현2동·논현고잔동 일원(0.67km²) 주변의 남동산업단지, 대형 레미콘 공장과 갈산1·2동 일원(1.6km²)의 한국GM 등 2개 구역 내 총 188개소 대기배출시설이 있으며, 취약계층 이용시설은 노인복지시설 등 총 54개소가 있다.

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해당지역에는 도로먼지 제거 청소가 강화되고, 실시간 미세먼지측정, 미세먼지 정보제공(미세먼지 신호 등 등), 미세먼지 회피저감시설(스마트에어샤워,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등) 설치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.

김달호 시 대기보전과장은 “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통해 어린이와 노약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”고 말했다.

<붙임> 추가 지정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

남동구 논현2동, 논현고잔동 일원



- 노인복지시설 (12개소)
- 어린이집 (5개소)
- 유치원 (1개소)
- 초등학교 (1개소)
- 병원 (5개소)
- 산후조리원 (3개소)

부평구 갈산1·2동 일원



- 노인복지시설 (1개소)
- 어린이집 (18개소)
- 유치원 (5개소)
- 초등학교 (3개소)